

2022년 7월호

선교편지

이항무 & 전미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약4:8)

Contact
+82 10 5031 1455
Yehyunlee93@gmail.com

저희는 지금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세 나라를 두 달에 걸쳐서 여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곳 전체 팀 수련회에 참여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였습니다. 저마다 부르심을 받고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를 영접해주고 삶을 나누어 주어서 감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6.30~7.11



수련회 전, 후에 선교사들이 각각 자기 집에 초대하거나 식사를 초대해 주어 깊은 교제를 하면서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동시에 힘든 것들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역 현장도 함께 방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카르타에서 7.11~7.13

인도네시아에서 30년 넘게 사역하는 신학교 여자 동기 선교사 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졸업 후 30여 년 만에 갑자기 연락했음에도 감사하게 저희를 환대해 주시고 선교 경험과 인도네시아 상황을 잘 소개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일군들을 찾고 21세기 선교를 말기하려는 흐름을 생각할 때 이곳도 중요한 사역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슬림들과 우정을 맺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은 전략과 담대함 그리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트남과 태국에 머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년 7월호

선교편지

이항무 & 전미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약4:8)

Contact

+82 10 5031 1455

Yehyunlee93@gmail.
com

베트남에서는 가포 교회 파송인 배수연 선교사를 만나 교제했습니다. 감사하게 수연 선교사가 저희에게 베트남에서 머무는 숙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거의 매일 수연 선교사와 만나 밥 먹고, 산책하면서 사역에 대해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7.13~7.29



현재 수연 선교사는 이곳 짜빈 대학 부설 세종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선교사가 운영하는 음악 학원에서 피아노 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에는 한국 교회에서 반주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꼬맹이였던 수연이가 어느새 장성한 어른이 되어 선교의 한몫을 해내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특하게 여겨집니다.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수연 선교사가 가포 교회의 다음 세대 선교를 이끄는 일군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How God had opened the door of faith (어떻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이번에 댁 식구들과 동기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 30년이 넘게 한결같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도 현지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어 변화를 가져온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하지 않게 그러면서 멀리 내다보는 자세가 선교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며, 전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는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영혼들을 준비하시고 교회와 학교와 제자들의 열매를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를 보내시고, 어느 곳에 복음의 문을 여실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 받은 이후에 섬길 교회를 인도하셨듯이, 이제는 선교사로 불러 주시고, 저희에게 적절한 사역지와 영혼들을 붙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고 두렵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시험에도 들고 인간의 욕심에 이끌리기도 합니다. 인간의 선부른 행동과 인간적인 욕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군들에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께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늘 되새기면서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주를 뫼따르면서 즐겁고 감사함으로

선교사의 길을 걸으려 합니다.

기도제목

1. 영혼과 복음에 대한 열정 주시도록
2. 만남의 축복을 주시도록
3. 선교지를 향한 부부의 마음이 일치되도록
4. 여행 내내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도록

